



# 홀로스 공동체

의식확장과 힐링, 새로운 사회의 연구 및 발전을 통한 물질과 의식의 통합

- 발행 월인 • 편집 허유, 초현, 씨이, 선호, 연우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53-74
- 전화 02-747-2261 • 이메일 cpo@herenow.co.kr

## 오인회 소식

2020년 8월 (제107호)

### 철학

모든 철학은 의존할 무엇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7/27 다르마 10만원, 8/3 박영래 2만원, 8/3 호요 10만원, 8/10 류창형 1만원, 8/10 선호 1만원, 8/20 여행 1만원, 8/24 반여 5만원, 8/25 다르마 10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입니다)

- 일반 (고을44, 원님44, 여몽37, 무유26, 쎬이26, 익명A24, 익명B24, 능주24, 솔내음21, 서원24, 기보24, 허유24, 거위24)
- 기타 (가온41, 구당44, 자현24, 오경아2, 호요1)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02-747-2261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 진심직설 준비중

필요액 500만원

이월 217만원, 3/9 서원 100만원, 4/15 해연 10만원, 6/1 데비 50만원, 현재 총 377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문의 02-747-2261



### '깨어있기'가 깨어있게 한다 (11부)

무연 님과의 대담 / 정리 : 영채

2013~2014년에 걸쳐 오인회에 참여하였던 무연 님과의 대담을 위주로 오인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감지에서 감각, '나'라는 느낌에까지 이르러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속 현상'으로 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무연 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생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 속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합니다. 그후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마음의 상이 내면에서 언어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고, 외부의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기'란 단어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인 : 자, 이게 뭐죠?

무연 : 안경집입니다.

월인 : 안경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의식했습니까?

무연 :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인 : 못했죠? 오케이. 자, 이제는 안경집을 보면서 안경집을 보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안경집을 보는 자기가 느껴지죠?

무연 : 네.

월인 : 그렇게 느껴지는 주체가 주체감이예요. 느껴지죠? 주체감으로서의 느낌이란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연 : 그럼 주체로서의 느낌을 느끼려면 대상을 보면서 주체라는 것을 의식해야만 느껴지는 겁니까?

월인 :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말하면서 말하는 자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삼분열이라고 해왔죠. 대상에 몰입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주체로 안 느껴집니다. 이미 주체로서 완전하게 동일시된 거죠. 자신을 의식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면 주체가 느껴지는 거죠. 90프로는 대상에 몰입되어 있지만 10프로 정도는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체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관찰을 할 때는 자기가 주체감으로서 느껴지겠죠. 관찰하는 놈마저도 주체감으로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 속에 들어있을 때, 즉 그 행위에 깊이 몰입되어 있을 때는 행위를 하는 놈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뜻언뜻 아주 속도가 빨라지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연 : 상대를 보면 그에 대한 경험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험 내용이 있는 주체였을 때, 내용을 빼고 남는 그것이 주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일으키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나오게 하는 그것이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월인 : 보는 순간에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오게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내용들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내용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올라오면서 주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나'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병으로 예를 들어보자구요. 투명한 병 이 안으로 대상에 대한 내 경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마음에 올라오면서 그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리병은 항상 혼자서 형성되지 않고 상대쪽 유리병과 짝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 유리병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이 투명하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경험내용과 이놈은 다른 거예요. 내용은 내용이고 내용이 살아있게 만드는 이놈이 주체로서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저 상대방을 경험한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무연 : 경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리병으로 담해지는 것은 저절로 그냥 일어납니까?

월인 : 아, 누가 담느냐? 그것은 대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대상과 함께 주체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원리이지요.

무연 : 그것을 담는 주체와 연관되어서 주체가 하는 행위인지요?

월인 : 그러니까 그런 담는 행위를 누군가가 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무연 : 네. 아니면 자동으로 일어나는지요?

월인 : 주체와 대상이 마음에서 나뉘지면서 마음속 내용들이 주체와 대상의 내용들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또 주워담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유리병이라고 말해놓으니까 이것을 또 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 비유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를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으로서의 느낌과 주체로서의 느낌 이것이 다르다는 것, **내용으로서의 느낌은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변함없는 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못 된다 이것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체감** 이것은 끊임없이 달라져온 경험내용과는 달리 늘 비슷한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나가 초등학교 4학년때의 나고 5학년때의 나다 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제의 나와 한달 전의 나가 변함없는 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주체로서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내용은 다 달라졌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는 변함없는 나인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한 그 느낌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나는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느낌'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그런 것마저도 느낌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요. 그것이 하나의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그것이 모두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느끼는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내용으로서의 느낌과 주체로서의 느낌**으로 나눠놓고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무연님의 마음을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내용은 분명히 다

달라졌잖아요? 세포마저도 다 달라졌어요. 몸의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7년마다 온 몸의 세포가 다 바뀌는데 그러니까 7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뀌었어요. 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해서 이 형태는 유지하지만, 마치 빙산이 매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듯이 내 몸도 7년마다 생겨났다 늙어서 사라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7년마다 반복하지만 유사한 이 형태대로 내 몸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7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는 내 몸이라고 여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도 그와 유사하게 모든 내용들은 다 바뀌었어요. 의식의 내용은 다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와 지금은 그 경험내용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런데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다고 느끼잖아요?

사실 한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차이가 나겠죠. 의식적인 내용에 있어서요. 그런데도 늘 변함없는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정말 변함없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느낌으로는 '그래도 변함없는 나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체로서의 느낌이 많은 것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서 '나'의 태도나 여러가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느끼잖아요? 내가 집에서 가족을 대할 때와 사무실에 가서 상사를 대할 때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내 태도가 다 달라져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의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볼 때와 저기를 볼 때 내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데도 여기를 볼 때와 저기를 볼 때 내용은 달라졌지만 '그것을 보는 나나 저것을 보는 나는 변함없어.' 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변함없는 나의 측면, 그것이 바로 주체로서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저놈(안경집)과 이놈(자신)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삼분열일 때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관찰하는 내가 있죠? 자기 마음 속을 관찰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을 관찰하는 나도 일종의 주체고 주체감이고 그 다음 이것(안경집)을 보는 나도 주체감이잖아요? 사물을 한번 보세요. 책상에 있는 사물이 뭐니까? 그놈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그다음 눈을 감고 자기 안을 관찰해 보세요.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죠? 그것이 느껴지죠? 그 느낌이나 다시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나나 어때요 느낌이? 비슷해요? 달라요?

무연 : 비슷합니다.

월인 : 비슷해요. 왜 그렇까요? 주체로서의 느낌이니깐 그렇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경험의 내용들이에요. 경험 내용들은 사실 우리를 변함없는 나라고 느끼게 만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면을 관찰할 때의 관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관찰자는 그냥 지켜본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밖에 있는 이 물건을 볼 때도 그냥 지켜본다는 느낌, 다만 이것은 이 사물 대상이 명백하니깐 이에 대한 경험내용이 나한테 올라와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빼고 보면 여전히 지켜본다는 느낌이 있으며 그것과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바라볼 때 관찰자의 느낌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주체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와 주체감을 구별했죠? 주체감은 주체로서 있다가 그 주체를 관찰하려고 관찰자를 만듦으로서 주체가 하나의 대상으로 바뀔 때 주체감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의 관찰자를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관찰하는 느낌, 이놈이 나인 것 같은 주체라는 느낌, 바로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세요. 하나의 느낌으로서 말이지요. 관찰할 때는 어때요? 특별하게 나라는 색깔이 없고 많이 흐릿해지죠. 왜 그러냐하면 관찰자라는 놈이 투명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투명한 놈을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나 역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색깔을 띤 아버지로서의 나나, 남편으로서의 나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특성이 없어진 느낌의 투명한 나죠. 그것이 바로 주체감만 남은, 완전히 주체감만 남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주체감만 남은 상태의 나인 것입니다. 관찰자를 바라보는 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보고, 아내를 볼 때는 어때요? 그런 투명한 느낌이 아니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바뀐 거죠?

무연 : 내용이 일단 바뀐 것입니다.

월인 :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 과정, 관찰자로서의 나 또는 관찰자를 지켜보는 자로서의 나도 같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고, 이쪽은 가깝고 저쪽은 멀고. 그것이 바로 주체의 느낌이지요. 설명이 좀 다가오나요?

무연 : 네.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월인 :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느낌으로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내용과 동일시되어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아 이것이 하나의 느낌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느낌 속입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느낌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해 파악되는 느낌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느낌으로 형성된 그 나를 그렇게 방어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지켜야 되겠죠. 새롭게 발견되거나 또 하실 말씀 있나요?

무연 : 오늘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연습을 좀 하다보니까, 의문이라든가 궁금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느낌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니다.

월인 : 좋네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땠습니까?

무연 : 멈춰진다고 할까요? 생각을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순간에 아, 이것이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니까 좀 멈춰진 듯하고 진행이 덜 되는 듯했습니다.

월인 : 생각이?

무연 : 어떤 스토리라고 할까요? 계속 가지 않고 순간 멈춰서 바라봐지는 걸 느꼈습니다.

월인 :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보실 겁니까?

무연 : 나라는 느낌, 주체감에 대해서 아직 더 해보고, 감지연습 계속 하겠습니다.

월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뵙지요.



###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알아차리다 (3부)

사랑나무 님 인터뷰

지난 4월 오랜만에 사랑나무 님이 함양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있다가 국내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누님이신 평은 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깨어있기 워크숍에 안내하고자 왔다가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소개합니다.

사랑나무 님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죽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왠지 죽어도 끝이 아닐 거란 느낌, 그래서 자주 한번 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25살쯤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지내던 중 마음속으로 더 이상 이렇게는 지내지 않겠다, 모든 것이 지겹고 세상이 지겨워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픈 갈증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낼 때 큰누님이 몇 권의 책을 보내 주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나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많은 갈증이 해소됨을 느꼈고 그 뒤 또 다른 책이 월인 선생님의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였습니다.

책의 내용이 알듯 말듯, 뭔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끌림에 깨어있기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기 워크숍 마지막 날, 밖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월인 선생님이 다가와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구가 가슴에 들어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런저런 체험과 통찰이 일어났습니다.

편 : 끝났다고 여기에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사 : 그때 순수의식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무아無我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체험이 있고 나니까 생각이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잘 내려보지다보니까 “아 이것을 말하나보다”라고 그때 그랬어요.

편 : 그래서 끝났다고 여겼는데 뭐가 답답했던 것이지요?

사 : 그때 월인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울은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저는



혼자 속으로 “아, 이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보다” 했는데, 월인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던지니까 “오 이게 끝이 아닌 거구나”라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일본에 가게 되고 계속 그 단어를 품고 있었어요.

편 : 그러니까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는 그 상태와, ‘거울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이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긴 것이군요?

사 : 그렇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편 : 지금 보면 뭐가 매치가 안됐었던 것 같아요?

사 : 음…….

편 :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 : ‘얹’이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편 : 얹이? 어떤 얹?

사 : 내가 순수의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얹이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해요.

편 : 아하. 그 얹이?

사 : 네.

편 : 나는 지금 투명함으로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인가요?

사 : 네. 그게…….

편 : 음, 그것이 왜 답답하게 느끼게 했을까요?

사 : 이제 그 언어하고 비교되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편 : ‘거울은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느껴지고 있으니까?

사 : 네. 이것은 느껴지는데 이제 제 속으로는 “어 끝났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또 ‘거울은 자신을 비출 수 없다’는 말이 딱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말이 내면을 계속 비췄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순수의식’이라고 ‘느꼈던’ 그 상태를 들여다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편 : 마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사물을 보고 밖에 사물들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물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는 알았는데,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있었다는 것은 아직 몰랐던 건가요?

사 : 예. 몰랐었어요. 그것이 실은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 무언가가 털리지가 않는 겁니다.

편 : 그런데 무언가가 이제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는 거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있었던 거군요.

사 :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것이 끝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였고 그것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울은 자신을 비출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지우개가 되어서, 탁 알게 되니까 그 발견의 순간 그게 딱 지워져버린 것 같아요.

월인 :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

사 : 음…….

월 : 지금은 어떤 마음인가?

사 :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가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 : 지금 ‘나’는 그럼 뭐야?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뭐지?

사 : 지금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월 : 나타나는 모습이야?

사 : 네.

월 :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니고?

사 : 네, 그건 아니죠.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또 감정에 따라서 그 '나'는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다른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제가 등장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월 :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사 : 네. 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저일 수는 없죠. 실은 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라고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중심이니까.

월 : 진짜 '나'를 보자고, 그러면 진짜 이 순간의 '나', 진정한 본성은 이 순간에 어떻게 확인되는 거지? 지금 확인이 돼?

사 : 봐야지 확인됩니다.

월 : 무엇을 봐야지?

사 : 이런 상황을.

월 : 보지 않을 때는? 대상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때도 그런 본성이, 지금 말한 그것이 있나?

사 :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건 사라질 수 없죠.

월 :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대상이 없을 때.

사 : 없을 때는 모릅니다. 앎이 없습니다.

월 : 앎이 없으면 없는 것 아니야? 뭐가 있는 거지, 그럼?

사 : 그때는 없어요.

월 : 그때는 없어? 그럼 그것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네?

사 : 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월 :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란 뭐지?

사 : 만약에 제가 뭔가를, 그 근본이라고 해서 찾으러 가면 그걸 상상으로 밖에 떠올릴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순간의 그 근본이라는 것은 또 지금 만들어 버리거든요.

월 : 그렇지. 지금은 그림자지. 지금은 그림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림자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 근본이 확인되냐 말이지

사 : 봐야지 확인돼요.

월 : 봐야지....

사 : 네.

(다음 호에 계속)

# 진심직설眞心直說 (1) – 2014년 5월 6일 강의 월인(越因)

그동안 연재되던 대승기신론 강의는 상·중·하 세 권으로 모두 출간되었으므로 이번 호부터는 보조국사 지눌의 진심직설 강의를 연재합니다.

이 강의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마음의 본질이라 할 진심眞心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直說)한 것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 편집부

“진심직설은 15장으로 되어있는 짧은 글로 대승기신론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이 진심이라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겠다고 한 측면에서 장광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해보려고 지눌스님이 애를 쓴 것으로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경전들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을 뽑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직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판단·비판 없이 그저 느끼고 음미하거나 감상하듯 글을 보고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 월인

##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몰랐던 것에 대한 대비되는 앎이다

진심직설은 진심 즉,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 글은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기록했습니다. 신라에 원효와 의상대사가 있다면, 고려에는 진각국사와 보조국사가 있었습니다. 진심직설의 서문은 지눌스님이 직접 쓴 글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서 서문을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 或이曰 祖師妙道를 可得知乎잇가 누군가 말하기를, 조사의 묘한 도를 알 수 있는가?

조사라는 것은 스승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되는 스승을 말합니다. 최고의 스승을 말할 때 주로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가 경험하고 터득한 그 묘한 도 즉, 본질적인 경험을 가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앎이라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부처의 도나 조사의 도는 같으니, 진심에 대해 말하려는 당신의 묘한 도는 과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 曰 古不云乎아 道는 不屬知하며 不屬不知하니 知는 是妄想이요 답하기를, 고래로 도는 앎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모른다는 데도 속하지 않으니, 안다는 것은 망상이요,

도道, 즉 본질이라는 것은 앎에 속하지 않으며,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앎知이라는 것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부터 조사나 선사들, 또는 경험적 통찰을 일으킨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앎에도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다는 것은, 곧 망상입니다. 망상은 무엇입니까. 망령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별을 통해서 구분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망상이라고 해왔습니다.

본질은 이상하게도 앎을 통해 또는 지식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어떤 지적인 도구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마음의 도구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전해지겠죠. 그러나 무슨 방법을 쓰든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앎이나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전해줄 수 없을까요? 이미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각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서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몰랐던 것에 대한 대비되는 얇습니다. 그것은 다 분별속의 얇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경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경험했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험되기 이전과 경험한 이후가 다르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미묘한 함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질은 경험 이전이나 경험 이후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본질 속에 있어요.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의미 하는 바 아니겠어요? 뭔가를 알고 경험하고 체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알고 경험하고 체득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뭔가 미묘한 분별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터득한 사람은 헛웃음을 웃죠. '아, 이거였어! 야,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늘 그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뭔가 위대하고 초월적이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얻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본질을 터득하거나 알아챈 이후와 그 이전의 삶은 분명히 혁명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현상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현상을 사실과 진실로 알고 있다가, 그것이 현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파악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현상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헛웃음을 웃으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얇에도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망상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나누는 마음이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마음, 이게 망상입니다. 나누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소리고, 그 기준과 동일시 되어있는 거예요. 즉, 동일시된 어떤 기준위에 서있을 때는 망상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아난아, 깨달았다고 여기는 아라한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군가 깨달은 아라한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함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 이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내가' 라는 것이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터득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한 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인데, '내가 경험했어!'라고 여긴다면 그건 미묘한 함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의에 나오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자신의 '나'라고 여긴 부분을 다루고, 그것 때문에 빠지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그것을 경험하고 감정으로부터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 내가 뭔가 달라졌어!'라고 여긴다면 달라진 나와 동일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관심을 뒤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나, 달라졌다고 여기고 뭔가 경험되었다고 여겨지는 나, 그런나마저도 하나의 미묘한 분별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함정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너와 나를 분별하고 이것저것을 나누는 망상 즉, 분별하는 마음을 실재로 여기는, 마음의 자동 메커니즘 또는 마음의 회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얇에도 알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고래로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안다고 말하는 것, 또는 안다고 여기는 것은 곧 망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분별입니다. 얇이라는 것은 분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도는 분별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얇이라는 것은 본질에 금긋기와 같습니다. 본질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물 위에 금긋기와 같습니다. 물은 아무리 금을 그어도 다시 금긋기 이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물에 금을 그어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마음속에 딱 저장해놓고 거기에 이름 붙여놓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이 감지의 세계라면, 사진 찍어놓고 이름 붙여놓으면 생각의 세계예요. 그때부터 그 이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지어내고 그 스토리들 각각에 붙어있는 느낌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세계라는 생생한 느낌의 환상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금 그은 것입니다. 물 위에 그은 금은 사실 허망한 것이죠. 언제나 스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라는 것은, 분별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전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얹에도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얹이나 모름은 일종의 개념 속에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얹과 모름은 둘 다 개념속의 한 부분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눌 수 없는 물위에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좋은 파도, 저기는 나쁜 파도, 여기는 옳은 파도, 저기는 그른 파도라고 이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다 사라졌는데, 이름 붙여놓은 그 파도를 마음에 새겨놓고서, 이름을 딱 떼올리면 그 파도가 실제하는 양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심이라는 것이 지식과 개념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강의를 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듣지 말고, 그냥 느끼듯이 들어보는 것입니다. 판단이 들어가면 이미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 이걸 아는데, 이걸 그럴 듯 해, 아, 맞네!’ 이것도 다 기준을 갖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하니 이파리가 돌아났고 드디어 나무가 자기 모습을 띄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이파리들 하나하나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우리가 생생한 나무이파리를 만지고 보고 할 때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지성적인 판단과 같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느끼고 감상합니다. 느끼고 감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저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저 느끼며 감상하는 마음입니다. 아무 기준이 없이 느끼고 감상하는 마음으로 이 진심직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전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홀로스 공동체 소식

### 8월 깨어있기 마스터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 양일간 서울 에스코빌딩 강의장에서 15차 깨어있기 마스터그룹 서울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깨어있기 마스터과정에서는 ‘기억으로서의 나를 넘어가기’를 공부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다보면 ‘나’라는 것이 정말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늘 변하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배경처럼 깔려있어 이 ‘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마스터과정에서는 이 ‘나’라는 느낌을 구별하고 찾아서 그것이 하나의 ‘기억’임을 알아차리고 그 기억으로서의 ‘나’를 내려놓고 순수한 ‘있음’을 경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펼쳐주시는 월인 선생님과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마스터과정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안



### 8월 8일에 제4차 깨어있기 청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감각과 감지에 대해 살펴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감각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는 것으로 거기에는 마음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이라는 것은 마음의 데이터들 간에 관계를 맺어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감각의 '자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조용한 느낌'은 상대적이어서 결코 한 장소가 늘 조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통에서 장사들 하던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심심산중의 절에 있다가 그 커피숍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소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익숙해있는 소음도에 따라서 조용하게도 느껴지고 시끄럽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느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며, 우리는 바로 그런 상대적인 느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험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상대적 느낌의 세계이므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대적 느낌이라는 것을 앞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8월 14일부터 64차 깨어있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절로 님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깨어있기 기초 수업에 두 달 만에 다시 참여했다. 저번의 수업보다 명확해지는 변화들이 있어서 반갑다. 알고 있던 개념도 이해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 공부가 진보하는 중인 듯하다. 복습 차원에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는 에너지이고 주의를 의식화 시킬 수 있다면 내가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주의,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다. 마음의 작용은 의외로 단순하다. 주위의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말은 주의만 잘 살피어도 마음 작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의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에는 낯설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일인 것처럼 주의를 낮춘다는 것은 마음의 힘을 빼는 것이다. 마음의 힘을 빼면 주의의 힘은 낮아지며 마음을 멈춘다면 주의도 그 기능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를 통해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나를 강화하는 것이다. 나와 대상은 서로를 존재케 하는 동력원이다.

대상을 향한 주의가 강할수록 그것을 인지하는 나도 강해지고, 대상으로 향하는 주의를 멈춘다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진다.

주의를 조절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주의를 잘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인식한다 해도 대충 한 방향으로, 같은 세기로 작동한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주의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동시에 준다면 전체에 주의를 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명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규정되진 않지만 전체가 인지가 된다.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나 또한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의식의 장에서 대상이 사라지면 함께 힘을 잃어버리는 나는 과연 실체가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나란 것도 느낌이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중심 노릇을 하는 고도로 발달된 느낌이다. 우리는 나란 느낌에 동일시되어 있어서 그걸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깰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인식하는 배경임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견고한 무엇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느낌이라는 걸 체감하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와 세상의 관계는 그저 '나라는 느낌이 대상의 느낌을 보는 것'이다. 나도 느낌, 대상도 느낌, 본다는 것도 느낌이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고 유지된다.

인식작용에 있어서 본다는 행위는 중요하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밀침, 끌림을 느끼고 그것에 기반을 두어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라는 기준에 연유한 밀침 끌림을 제거하고 분별하는 기능으로만 사물을 보면 사물의 느낌이 달라진다. 이처럼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가변적이고 또 일시적이다. 이처럼 자아의 호오를 떼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감지라고 한다면 그



감지의 느낌을 파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라는 느낌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감지는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리하게 보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의 전환이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하는 모든 것은 모두 느낌이다. 실제로 그러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려낸 그림이다. 세상은 느낌으로 이루어진 뿌리 없는 세계다. 느낌은 관계 맺기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느낌은 서로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이지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생각 덕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름과 생각이라는 색인을 댄 느낌의 세계는 아날로그 세상과 디지털 세계의 차이처럼 훨씬 풍요롭고 생생한 세계가 될 것이다.

감지를 넘어 감각상태에서는 아예 대상이 마음에서 사라진다. 감지상태에서 감각상태로 가는 과정도 주의와 관련이 있다. 주의에 힘을 빼면, 즉 마음에 힘을 빼면 감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눈으로는 시각적 자극을 보고 있지만 마음에는 그 대상이 그려지지 않는다. 결국 대상을 본다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나라는 느낌도 동시에 약해진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 나와 대상은 함께 생성되고 또 소멸되는 느낌일 뿐임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사실 감각상태를 늘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 어떤 자극에 어떤 느낌을 투사해 무엇이다 라고 대상을 이름 붙여 규정하여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고 있다.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지만 찬찬히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그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백일학교 일상을 공유합니다



수박 한 조각



무밭 갈고 씨 뿌릴 준비



까미 산책



잔디 깎기



까미 목욕시키기



목욕하는 까미



강아지 타프 그늘 만들기



더위 피하는 개들





잠자리를 손 안에



잠자리와 소통하기



용추사 탐방



입구 낙엽 쓸기



수국 돌보기



한낮의 여유



동네 한 바퀴



앵두관에서



비온 뒤 농월정





청향관에서 점심



청향관 캠프



생일 파티



청향관 캠프 늦게까지



후원

### 후원 감사드립니다

- 도날드 님: 수박, 외식
- 물방울 님: 믹서기, 세제 외
- 저절로 님: 아이스크림
- 수디 님: 아이스크림, 빵, 타프 외
- 이순영 님: 수박, 계란

# 강의 · 도서 구입 안내


## 1. 영상강의 데이터 목록

영상강의는 USB 메모리에 넣어 제공되며 1강의당 3,000원입니다. 아래 구분은 편의상 한 것으로, 영상강의 데이터는 원하시는 순서, 시간만큼 요청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다르마, 이류, 아소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구분	강의	가격	비고
1	진심직설	전체	총 48강	144,000원	2014.10.28 -2015.6.2
		1강-12강	각 12강	각 36,000원	
		13강-24강			
		25강-36강			
37강-48강					
2	조론	전체	총 52강	156,000원	2017.4.4 -2018.5.15
		1강-13강	각 13강	각 39,000원	
		14강-26강			
		27강-39강			
40강-52강					

- ※ 영상강의 원본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직접 담아가시거나, 외장하드를 보내주시면 저장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본과 용량을 줄인 동영상의 가격은 같습니다.)
- ※ 700메가로 줄인 영상강의는 이메일이나 32기가 USB(40시간 정도 수록, 별도 1만원)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 2. 도서 안내

구분	제목	가격
필독 도서	깨어있기™ - 의식의 대해부	12,000원
	관성을 넘어가기™ - 감정의 대해부	10,000원
추천도서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권	25,000원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中권	25,000원
	주역, 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 (만화)	10,000원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	8,000원
	<a href="#">푸른 빈 배 (eBook)</a> 	7,000원

### ◆ 구입문의 ◆

- ※ 입금계좌 :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 ※ 문의 02-747-2261

- ※ 홈페이지, 문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 ※ 주문하실 때는 주소, 휴대폰 번호,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 ※ 배송료 2,500원(제주도 5,500원)을 합산해 입금해주시시오. (주문금액 10만원 이상은 배송비 무료)